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3월 22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강원도산에 밀리는 제주메밀, 도약 발판 마련 ‘기대’ -4면	미래농업육성과	제주매일
○	서귀포농기센터, 영농부산물 파쇄작업단 발대식-12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찬 바람 속 당근 수확-4면	-	제주일보

(제주매일: 2024년 3월 22일)

○ 강원도산에 밀리는 제주메밀, 도약 발판 마련 ‘기대’ -4면

강원도산에 밀리는 제주메밀, 도약 발판 마련 ‘기대’

재배면적 1665ha로 전국 2259ha의 73.7% 불구 인지도 떨어져
도농기원·제주메밀영농조합법인, 제품 패키지 개발 브랜드 제고

제주산 메밀 생산량이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지만 강원도산에 비해 명성이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메밀 제품 패키지 개발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내 메밀 재배면적은 1665ha로 전국 2259ha의 73.7%, 생산량은 1264t으로 전국 1982t의

63.8%를 차지할 만큼 제주는 명실상부한 메밀 주산단지다.

하지만 제주산 메밀은 도내 가공시설 부족과 소비자 인식 부족, 강원도산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고 음료, 면류, 육, 유산균 등 다양한 메밀 가공제품이 출시되는 데에 비해 제주 가공제품은 대부분 메밀쌀, 메밀가루 등 1차 가공단계에 머물러 있다.

생산자 등은 제주 메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공상품 개발과 판매 촉진, 이미지 향상을 포함해 통합브랜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도농업기술원은 건강식품과 경관 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메밀 소비 확대 및 관광 상품화를 위해 제주메밀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주메밀 제품 패키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도농업기술원은 메밀 건면 등 제주메밀을 이용한 가공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포장 디자인을 개발한다. 도농업

기술원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제주메밀의 부가 가치 향상을 위해 메밀 가공식품 2종(건면, 커피)을 개발하고, 소비확대 및 제주메밀의 통합브랜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소비자 인지도를 조사했다.

지난해 가공식품 개발에 이어 올해 추진하는 패키지 개발사업으로 메밀건면과 메밀커피 등 메밀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 고급 선물세트를 구성하면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22.

제주매일 4쪽

(제주일보: 2024년 3월 22일)

○ 서귀포농기센터, 영농부산물 파쇄작업단 발대식 -12면

서귀포농기센터, 영농부산물 파쇄작업단 발대식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윤)는 지난 20일 (사)한국농촌지도자서귀포시연합회(회장 김영순) 회원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작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3.22.
제주일보 12

(제주일보: 2024년 3월 22일)

○ 찬 바람 속 당근 수확-4면



3.22.
제주일보 4

찬 바람 속 당근 수확

21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당근밭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